

정원에 300여종 울긋불긋 '야생화 피는 집'

담양군 창평면 용수리

김용복·곽경자씨 양옥집

접근성 좋아 전원주택지 각광

2006년엔 달피미술관 문 열어

■ 용수리는 어떤 곳

담양군 창평면 용수리 일대는 광주에서의 접근성과 풍광 등으로 인해 전원주택지로 인기가 높다.

김씨 부부가 자리잡은 용수마을은 용수리 2구에 속하며 월봉산의 한글이름을 딴 달피마을로 더 잘 알려져 있다.

정찬용 전 청와대 인사수석을 비롯해 5~6명이 수년전 이 마을에 전원주택을 짓고 정착했다.

마을창고를 개조해 만든 달피미술관이 지난 2006년 5월 18일 문을 연 이후 작가들의 전시공간으로도 자리 잡아가고 있다.

용수리 1구 수곡마을에는 맞춤형 전원마을인 '창평 용수지구' 조성사업이 추진중이다. 국비와 지방비로 도로, 상하수도, 오·폐수처리시설 등 기반시설이 조성되면 입주자들이 땅을 매입해 집을 짓는 방식이다. 7만453㎡(2만1천311평) 부지에 유럽풍의 전원주택 50가구가 지어질 계획이다.

현재 마을정비구역 지정 승인 신청서가 전남도에 제출된 상태로 땅값은 평당 5만원 선.

담양군 김형석 도시개발계장은 "창평 용수지구는 입주자들이 스스로 입주 대상자를 선정하는 입주자주도형 전원마을로 대기자들이 순번을 기다릴 정도로 인기가 높다"며 "내년 하반기쯤 완공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담양군 창평면 용수리 용수마을 입구에서 좌회전하면 '멘토르'라는 팻말이 붙은 2층 양옥집이 눈에 들어온다. '야생화 피는 집'으로 유명한 이 집에 들어서면 넓은 정원에 300여종의 야생화들이 손님을 반긴다.

멘토르는 김용복(55)·곽경자(48)씨 부부가 전원생활을 만끽하고 있는 곳이다. '나를 이끌어주는 스승같은 지혜로운 친구'라는 의미의 멘토르가 그리스 신화에서 유래됐듯 건축양식도 그리스식이다. 대리석 기둥의 현관을 비롯해 수평으로 가로지른 보위에 삼각형 지붕이 조화를 이루고 있다.

대지 500평에 1층 60평, 2층 40평으로 전원주택치고는 꽤 큰 편이다. 어느 전원주택과 다른 점은 1층을 음식점으로 운영하고 2층은 살림집으로 사용한다는 것이다. 자연을 벗 삼아 전원생활을 즐기면서 취미를 사업 아이템으로 연계시킨 경우다.

김씨 부부가 이곳에서 전원생활을 시작한 것은 지난 2004년 12월부터. 부부교사였던 이들은 김씨가 교직생활 25년만인 2002년 말 고교 영어교사를 그만 두면서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다.

"40대 후반부터 전원생활을 꿈꿔 왔습니다. 무조건 시골에서 살겠다는 생각을 명예퇴직과 함께 구체적인 실행으로 옮겼습니다"

김씨는 창평에 터를 잡은 이유로 접근성과 야생화, 자녀교육을 들었다. 광주에서 중학교 도덕교사로 재직중인 아내의 출·퇴근을 감안했고, 자신의 취미인 야생화를 쉽게 접할수 있는 곳을 택했다. 퇴직 후 2년간 부지매입과 건축과정을 거쳐 들깨 밭이 창평고에 입학하는 시기에 맞춰 입주했다.

아내 곽씨는 "처음에는 주거 목적으로만 집을 지을 생각이었는데 우리부부의 공동 취미인 야생화의 오묘한 맛을 음식으로 만들어 보고 싶어 식당을 열었다"고 말했다.

야생화에 대한 김씨의 식견은 전문가 수준이다. 18년전 '남도야생화'라는 동호회를 창립했고 국립식물원의 한반도식물 인프라구축사업에 참여해 야생화 표본 1만2천점의 데이터베이스작업도 김씨 손을 거쳤다. 곽씨도 남편을 따라 마을 앞산이자 야생화의 보고로 유명한 월봉산을 드나들며 전문 지식을 쌓았다.

이들의 야생화 사랑은 멘토르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 정원에 있는 야생화 300여종 가운데 90%는 이들이 직접 채집하거나 귀하게 구한 토종이다. 음식점에도 계절에 따라 40~50여 가지의 야생화가 식단으로 올라온다.

대표적인 것이 '곰보배추'로 불리는 '배암차즈기'와 '아관문(비수리)'이다. 배암차즈기는 봄 야채로 인기고, 술로 담은 아관문은 천연 비아그라로 불린다.

주말과 휴일에는 직접 손님들을 맞는 곽씨는 조미료 등 화학첨가제 대신 솔잎 등으로 만든 효소를 양념으로 사용해 마니아층의 단골 고객을 확보하고 있다.

일부 단골 고객들에게는 음식점을 문화공간으로



김용복·곽경자씨 부부가 멘토르 정원에서 자신들이 직접 황토로 염색해 만든 천을 살펴 보고 있다.

/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취미인 야생화 쉽게 접할 수 있어 창평 선택 황토·쪽 염색으로 스카프 등 만들어 사용 "전시회 공간·문화 사랑방 운영 하고파"

내어주기도 한다. 지난 연말에는 몇 가족이 모여 각자 약기를 연주하는 풍물만년회를 열기도 했다. 김씨는 "얼마전까지는 매달 한편씩 추억의 영화도 상영했다"며 "전시회도 여는 문화공간이자 사랑방처럼 운영하고 싶다"고 말했다.

멘토르에 오면 이들 부부의 또다른 취미인 염색체험도 할 수 있다. 이들은 황토와 쪽 염색으로 스카프·이불 패드 등 다양한 제품을 만들어 직접 사용하고 있으며 염색체험을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투자개념으로서 전원생활의 성공 가능성을 묻자 곽씨는 "욕심내지 않고 월 100~200만원의 수익을 생각하면 성공할 수 있다"고 귀띔했다.

김씨는 "우리집의 경우 4억을 들였는데 이 정도의

수익이면 투자개념으로는 실패한 것 아니냐"며 "평생 꿈인 한가로운 전원생활을 즐기면서 약간의 수익이 보장된다면 더할 나위가 없다"고 말했다.

김씨는 또 이곳 일대에서 전원생활을 하려면 토지 매입비로 평균 20만원 안팎, 건축비로 1억원 정도는 생각해야 한다고 전했다. 200~300평의 부지에 건평 30~40평 정도라면 1억5천~1억6천만원 정도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바람이 이렇게 많이 부는지 도시에 살 때는 몰랐습니다" 김씨 부부는 "비가 오면 비 소리, 바람이 불면 바람 소리가 그대로 마을속에 전해진다"며 "거실에 앉아 월봉산에 뜨는 달을 보면 마치 세상의 모든 행복을 가진 것 같은 착각이 든다"고 웃음지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곽경자씨가 마늘과 솔잎 등을 발효시킨 양념 효소를 직접 만들고 있다. /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SONY New BRAVIA

고객감사축제·TV중고보상판매

쇼니는 최신품을 판매 한 해는 TVES 레코를 거부합니다!!

무시리즈 고객사 이벤트

- W시리즈 40인치 이하: X3000시리즈 15~30만원 상당의 솔잎 or 달피계열 특산 상품
- X3000시리즈 40인치 이상: 30만원 상당의 상품

무시리즈 TV중고보상판매

- W시리즈 30인치 이하 중고 TV보상
- X3000/3500시리즈 50만원 이하 중고 TV보상

062-522-2000

소비자 만족도 1위!!

가격 실용 성능이 이따 선택이 아닌 필수인

365일 무관한 사후 서비스 제공 중이기

062-371-7095

011-601-7701

(주)무등산업